

직업 차별적 언어 사용과 인식에 대한 말뭉치 용례 연구*

박은하

(대구대학교 강사)

Abstract

Park, Eun-ha. 2019. "Differential Language Use and Perception of Occupations in Korean Corpus".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27(4), 89~11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 corpus regarding the use of discriminatory language and its perceptions. First, we examined informal job titles that indicate social views regarding the respective workers, and then we analyzed expressions indicating negative perceptions as well as negative expressions about occupations and tasks to determine negative views or attitudes toward the workers. Summarizing the results of the analysis, *ganhowon*(nurse) and *cheongsobu*(cleaner) as inappropriate titles, *nogada*(physical labor) and *gongdori/gongsuni*(factory boy/girl) as expressions of negative perception, and *nogada* and *wunjeonsu*(driver) in negative expressions related to occupations and work occur with high frequency. *Ganhowon* is used with titles for women like *eonni*(older sister), *agassi*(lady), and Miss ○, *cheongsobu* and *pachulbu*(day maids) with the titles *ajumma*(tannie) and *ajeossi*(older man), *wunjeonsu* and *gongsuni* with the epithets *nom*(jerk) and *nyeon*(bitch), and *nogada* with the titles *ilgun*(workers) and *inbu*(laborers), and such terms as *jjapsae*(the fuss) with a epithet *saeggi*(jerk/bleeder) are used mainly as inappropriate titles. Bad behavior, deprecatory social treatment, and negligent discrimination are conveyed in these expressions of negative perception. The expressions related to occupation and work were mainly used for professionals doing less respected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과제번호)(NRF-2018S1A5B5A07071717). 이 논문은 2019년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제49회 한말 연구학회 전국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or socially lower work or who do not work well, and there were many expressions indicative of low status or lower rank in the job hierarchy. Lastly, references to appearance and sexuality were those most frequently used in expressions conveying other occupational discrimination, and were found to be used mainly for *ganhowon* and *gongsuni* who are young women.

Keywords: occupational discrimination, differential language, corpus, language use, perception

1. 머리말

예부터 백정, 예인(藝人), 무속인 등을 일반 직업인으로 대하기보다는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하는 직업으로 보고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배척하는 등의 차별 대우를 해왔다. 근래에는 화이트칼라, 블루칼라라고 하여 사무직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푸른 작업복을 입은 육체노동자를 달리 일컫는 말이 생겼고 이들에 대한 인식 및 태도도 달랐다.

현재 신분제는 사라지고 직업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인식으로 인해 직업에 대한 선호도, 직업으로 버는 수입, 직업에서 얻는 지위 등에 따라 부정적 및 긍정적 인식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직업과 관련한 차별적 언어 사용과 인식이 드러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직업과 관련된 차별 현상을 비판적 관점으로, 특히 직업 차별과 관련한 사회 언어적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직업 차별적 언어 사용과 인식을 말뭉치를 통해 조사하여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고용차별시정 권고 사례를 분석한 연구인 조용만(2012)에 따르면, 고용 관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차별은 모집·채용시의 나이 차별, 임금 등의 지급에서의 비정규직 차별, 그리고 정년에서의 직종·직급별 차별이다. 이 연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고용과 관련한 차별에는 나이, 장애, 성별, 비정규직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직업 차별과 관련한 선행 연구 중에서 나이, 성별, 장애, 비정규직을 다룬 연구를 살펴봤을 때, 직업 차별 가운데 장애인에 관한 연구로는 안은숙(2008), 권선진(2006), 나운환·류정진·김동주(2003), 나운환·정명현·박철현(2003) 등의 학술지 논문과 박미희(2018), 주정수(2015), 김태용(2014), 홍예선(2011), 이경미(1993) 등과 같은 학위 논문이 있다.

성별과 관련한 직업 차별 연구에는 박주영(2006), 유경희(2003), 박정선(1985) 등의 학위 논문과 김광호(2017), 신광영(2011), 안수영(2008), 김정숙(2007), 구미영(2007), 마경희·김혜경(2005), 임인숙(2003), 김혜연·김순미·윤숙현·김성희(1999), 김의순(1994), 정진영(1987) 등과 같은 학술지 논문이 있다.

직업 차별 연구 가운데 나이 관련 연구로는 우국희·주경희·이연순(2012), 전윤구(2010) 등이 있고 비정규직 및 기간제 관련 직업 차별 연구에는 김난희(2018), 박동현(2011), 임선섭(2011), 정재권(2009), 배병호(2008) 등의 연구들이 있다. 이외에도 직업 차별 중에 계층과 외모 관련해서는 각각 김화순(2010), 박천수(2011) 등이 있고 지역과 관련한 직업 차별 연구로 최인숙(2012), 김창환(2008) 등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연구는 직업 차별과 관련해서 언어적 측면에서 논의한 연구는 아니지만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직업 차별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만하다. 한국어 화자들의 직업 차별적 언어 사용과 그 인식이 어떠한지를 제대로 이해해야 이를 바탕으로 직업 차별에 대한 인식, 표현, 행위를 줄이는 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긴다.

이상에서 언급한 선행 연구들은 직업 차별과 관련한 연구이지만 성별, 연령, 계층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과 장애 및 비정규직 등의 직업 차별적 요인들을 언어적 측면에서가 아니라 사회, 경제, 복지, 노동 정책 등의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직업 차별을 언어적인 측면에서 특히 언어 사용과 인식 측면에서 논의한 기존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나마 직업명을 대상으로 언어적인 측면에서 차별을 연구한 논문이 조홍중·전리상(2017)과 이정복(2010) 두 편이 있다.

조홍중·전리상(2017)은 직업뿐만 아니라 교육, 질환, 장애와 관련한 차별

용어를 분석해서 비판적으로 검토한 연구이다. 직업 관련 용어에서는 ‘월급쟁이’, ‘간호원’, ‘노가다’, ‘청소부’, ‘파출부’ 등의 차별적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차별 용어의 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용어를 제안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라고 하였으나 직업 차별 용어에 대한 바람직한 용어나 대안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정복(2010)은 한국 직업 이름에서 위계질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와 직업 이름과 관련된 차별 현상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분석한 연구이다. 직업 이름과 관련하여 집단 간 대립과 갈등, 그리고 차별 현상을 의사와 간호사를 사례로 들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직업 이름에 단순한 정보 표시는 물론이고 종사자들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드러내고 해당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지위를 나타내주는 기능이 있음을 밝혔다.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직업 차별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장애차별이나 성차별의 실태 또는 그와 관련된 일부만을 조사하는 데 그치고 있어서 직업 차별에 대한 포괄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직업 차별과 관련한 언어적 측면의 연구는 아니지만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 있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김완석·김선희(2003)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직업에 관한 고정관념 연구로, 학생들이 지각하는 각 직업의 명성 수준과 직업의 성 유형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직업 차별 태도를 검토해 본 바, 직업의 귀하고 중요한 직업과 천하고 하찮은 직업을 구분하고 직업 선택 시에 사회적 지위가 높고 낮은 직업에 대한 구분 그리고 ‘사(師)’자가 들어가는 직업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 인식 등을 다루었다.

이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에서 언중들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직업에 대한 선호도, 보수, 평가 등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차별 의식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정복(2010: 3)에 의하면 직업을 가리키는 이름 자체에서부터 차별과 위계질서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직업 이름의 사용과 관련하여 차별적 언어 사용 현상도 흔하다고 한다.

2. 연구 대상과 방법

본 연구의 대상과 방법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 연구에서 말하는 직업에 대한 차별 언어 및 표현에 관한 내용을 검토한다. 현재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직업의 종류는 거의 2만 개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된다(이정복 2014: 303). 모든 직업을 대상으로 직업 차별적 언어 사용을 조사하기는 무리이므로 우선 앞서 살펴본 선행 연구 가운데 직업과 관련한 차별 용어를 살펴본다.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선행 연구에서 다룬 직업 관련 차별 용어

연구자(연도)	직업 관련 차별 용어
조홍중·진리상 (2017)	월급쟁이, 간호원, 노가다, 청소부, 파출부 , 때밀이
권대건(2017)	공돌이/공순이, 잡상인, 봉급쟁이, 낚시꾼, 노가다, 철밥통, 간호원, 청소부, 파출부 , 경비원, 매춘부
이정복(2014)	공(工)이 붙은 직업 이름: 도배공, 도장공, 발파공, 인쇄공 장(匠)이 붙은 직업 이름: 간판장, 옹기장 수(手)가 붙은 직업 이름: 목수, 무용수, 선수, 신호수 부(夫, 부(婦)가 붙은 직업 이름: 광부, 인부; 접대부, 파출부 희(姬)가 붙은 직업 이름: 가희, 무희
김형배(2007)	공돌이/공순이, 잡상인, 탄파라, 환쟁이, 월급쟁이/봉급쟁이, 째새, 노가다, 식모살이/부업데기, 낚시꾼, 점쟁이, 광대짓, 간호원, 청소부, 파출부/아줌마
조태린(2006)	잡상인, 월급쟁이/봉급쟁이, 점쟁이, 철밥통, 간호원, 청소부, 가정부/ 파출부 , 기능인, 신용불량자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연구자가 ‘파출부’가 직업 관련 차별 용어라고 지적하였다. 이외에도 ‘월급쟁이’, ‘간호원’, ‘노가다’, ‘청소부’, 그리고 ‘잡상인’을 공통되게 차별 용어라고 하였다. 이정복(2014)을 제외하고는 앞선 연구들이 직업 관련 차별 용어를 유사하게 선정하고 다룬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사전에서 직업 차별 용어의 지시적 의미를 검토한다.

선행 연구에서 공통으로 논의한 직업 관련 차별 용어인 ‘파출부, 월급쟁이, 간호원, 노가다, 청소부, 잡상인’ 여섯 어휘가 국어사전에 각각 어떻게 뜻풀이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쓰임도 함께 제시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지시적

의미를 살펴볼 사전은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 연세대 언어정보 연구원의 《연세한국어사전》,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의 《한국어대사전》 세 가지다.¹⁾

셋째, 말뭉치의 용례를 검색하여 조사·분석한다.

사전에서 제시된 용례는 언어 화자들의 간접적인 언어 사용을 알 수 있다면, 말뭉치는 한국어 화자들의 실제 언어 사용을 직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앞서 직업 관련 차별 용어로 다룬 여섯 단어에다가 선행 연구에서 직업 관련 차별 용어로 논의하였거나 현재 직업과 관련해서 차별 용어로 간주되는 네 단어를 추가하여 총 열 가지 직업에 대한 언어 사용 양상을 조사·분석한다. 분석 자료는 국립국어원 언어정보나눔터(21세기 세종계획)에서 구축하고 제공하는 말뭉치이다.²⁾ <말뭉치 용례 간단 검색>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700만 어절의 말뭉치에서 검색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 말뭉치 검색 결과

단어	개수	단어	개수	단어	개수	단어	개수	단어	개수
파출부	176	월급쟁이	158	간호원	324	노가다	140	청소부	142
잡상인	26	공돌이/공순이	19/24	점쟁이	164	운전수	267	잡새	10

열 가지 직업을 검색한 결과, ‘간호원’이 324개로 가장 많았으며 ‘운전수’가 267개로 두 번째 순위를 차지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직업 차별 용어로 다룬 여섯 가지 직업의 말뭉치 검색 결과를 보면 ‘잡상인’을 제외하고는 각각 140개 이상의 용례들이 검색되어 비교적 쓰임이 활발함을 알 수 있다.

1) 이하에서 《표준국어대사전》은 ‘가’, 《연세한국어사전》은 ‘나’, 그리고 《한국어대사전》은 ‘다’로 표기한다.
 2) 국립국어원 언어정보나눔터(21세기 세종계획, <https://ithub.korean.go.kr>)에서 말뭉치를 검색하였다. 이는 21세기 세종계획 국어기초자료 구축 사업으로, 지난 10년간(1998년~2007년) 개발되어 온 것이며 현대 한국어의 총체적 현실을 반영하는 말뭉치 구축(원시 말뭉치, 형태 분석 말뭉치, 형태 의미 분석 말뭉치, 구문 분석 말뭉치)을 하였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국어원(2007)의 《21세기 세종계획 최종 연구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선행 연구에서 ‘점쟁이’를 논의한 만큼 사례가 많은 편이지만 ‘공돌이/순이’, ‘짬새’는 선행 연구에서 직업 차별 용어로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례가 적었다.³⁾ 이에 비해 ‘운전수’는 선행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직업 차별 용어인데도 빈도 면에서 두 번째 순위를 차지할 만큼 사례가 많았다.

3. 연구 결과

우선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직업 차별 용어에 대한 지시적 의미를 살펴본다. 어휘의 의미는 문장에서 함께 쓰인 다른 구성 요소들과의 결합 관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실제 용례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므로 용례도 함께 제시한다. 먼저 세 가지 사전에 나오는 ‘파출부’의 뜻풀이와 용례를 본다.

(1) 파출부

가. 보수를 받고 출퇴근을 하며 집안일을 하여 주는 여자.

예) 맞벌이로 바쁜 부부는 파출부를 고용했다.

삼류 대학에 간 아들을 위해 부모는 빚을 얻고 파출부로 뛰고 소를 팔고 발뺀이를 판다.

나. 일반 가정의 요청을 받고 날일, 또는 시간제로 집안일을 돌보아 주는 여자.

예) 혹시 소라네 파출부 안 쓰세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파출부라도 해야 살겠어요.

다. 보수를 받고 일정한 시간과 기한 동안 출퇴근하며 가사를 돕는 여자.

예) 오늘은 파출부 아줌마가 오시는 날이구나.

딸의 일기장에는 파출부 일을 하는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이 가득했다.

‘파출부(派出婦)’는 직업 이름에 성별을 나타내는 한자 ‘부(婦)’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을 나타내고 있어서 위에 제시된 세 사전의 지시적 의미에서도

3) ‘점쟁이’는 김형배(2007)과 조태린(2006)에서, ‘공돌이/순이’는 권대건(2017)과 김형배(2007)에서 다루었고 ‘짬새’는 김형배(2007)에서 논의하였다.

모두 ‘파출부’의 직업은 여자에 한정한다. ‘파출부’의 용례를 살펴보면, ‘파출부 안 쓰세요?’가 있는데 이 문장에서 ‘쓰다’는 단순히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다’의 의미이지만 용례를 보면⁴⁾ 하급자, 연령 및 지위 등이 낮은 사람에게 사용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파출부 이준마가 오시는 날이구나.’에서 ‘파출부’에 ‘이준마’를 결합하여 파출부 직업을 낮추어 이르고 있음을 보여 준다.

(2) 월급쟁이

가. 월급을 받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예) 몇 억이면 웬만한 월급쟁이들은 평생 가도 못 만져 볼 큰돈이다.

비싼 데는 가지 마세요. 삼촌은 실업자고 숙모님은 박봉 월급쟁이인데 괜히 과용해가지고 후회 안 하도록요.

나. (알잡아 이르는 말로)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

예) 나 같은 월급쟁이에게 무슨 돈이 있을 거라고 그러오.

월급쟁이가 아파트를 하나 장만하려면 10년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다. 월급을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을 알잡아 이르는 말.

예) 아버지는 평범한 월급쟁이로 평생 우리들을 기르셨다.

그는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하다가 자그마한 회사의 월급쟁이로 취직하였다.

세 사전의 뜻풀이에서 이미 직업 차별 용어임을 알 수 있는데 ‘낮잡거나 알잡아’ 하는 말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쟁이’ 접미사가 앞에 붙는 직업에 대해서 낮잡아 이를 때 사용하기 때문이다. ‘-쟁이’가 붙는 직업명으로는 ‘점쟁이(관상쟁이), 글쟁이, 환쟁이(그림쟁이), 이발쟁이’ 등이 있는데 이 모두가 직업을 차별하는 언어 사용인 것이다. 세 사전에 제시된 용례를 보면 월급쟁이는 부자는커녕 큰돈을 모으거나 만져 볼 수 없는 직업으로 표현하고 있다.

4)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쓰다’의 의미는 ‘【…을 …으로】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다.’이며 그 용례로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예) 하수도 공사에 인부를 쓴다./집안일에 파출부를 썼다.

(3) 간호원

가. ‘간호사’의 전 용어.

예) 젊은 의사가 혈압기를 든 간호원과 함께 다가와서 물었다.

대부분의 환자가 휠체어에 실려 나오거나 간호원들의 부축을 받고 걸음을 옮기고 있다.

나. (이전 말) 간호사.

예) 미스 윤은 이 병원에 있는 단 한 사람의 간호원이다.

병실에 누워 있으면 간호원이 열을 재고 맥을 짚으러 오고 밖에 나가야 할 일이라고는 없었다.

다. ‘간호사(看護師)’의 이전 말.

예) 없음

‘간호원’은 세 사전의 뜻풀이에 나와 있듯이 ‘간호사’의 이전 말로, 간호원은 1987년에 간호사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언중들은 간호원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간호원의 ‘원(員)’에서 간호사의 ‘사(師)’로의 변경이어서 직업 이름의 언어적 지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⁵⁾ 그러므로 간호원은 변경 전의 직업 이름이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전에 제시된 용례를 봤을 때 딱히 낯잡거나 부정적인 표현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미스 윤은 이 병원에 있는 단 한 사람의 간호원이다.’의 문장에서 간호사를 부르는 호칭이 부적절하여 여전히 간호사를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 직업인으로 인정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미스 ○’은 ‘○ 양’과 마찬가지로 이름이나 사회적인 신분을 나타내는 직위로 호칭하지 않는 것이며 이는 여자를 공적인 존재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⁶⁾

5) 의료 현장에서 의사와 함께 중요한 축을 맡고 있는 간호사들은 1907년 대한의원에 간호부양성소가 설치된 후 ‘간호부(看護婦)’로 불리게 되었다.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를 받아 환자를 돌보는 ‘여성 일꾼’ 정도로 대접받은 것이다. 해방 이후 직업 이름의 전반적인 변화 속에서 간호 업무의 전문성을 알리고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간호사들의 노력으로 ‘간호부’는 ‘간호원(看護員)’으로 바뀐다. 간호사 단체에서는 업무상 의사의 지시를 받더라도 역할 수행에서는 전문 지식을 갖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의사와 마찬가지로 ‘사(師)’를 붙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침내 1987년에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간호원’이 ‘간호사(看護師)’로 승격되었다(이정복 2014: 333~334).

6) 박은하(2009: 205)에 나오는 성별에 따른 호칭어와 이에 대한 인식 조사를 참고하기 바란다.

(4) 노가다

가. 막일꾼; 막일을 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예) 저는 이 집에서 짐이나 저 나르는 막일꾼이오.

막일꾼 행색의 남루한 젊은이가 마루 밑으로 웅크려 앉았다.

나. ‘(공사판) 노동자’의 일본식 용어.

예) 작년부터는 몸으로 벌어먹는 노가다 일을 주로 했습니다.

다. ‘막일꾼’의 비표준어.

예) 없음

<가> 사전에서 ‘노가다’를 ‘막일을 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뜻풀이하였다.⁷⁾ ‘막일’의 의미가 ‘중요하지 아니한 허드렛일’이거나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닦치는 대로 하는 노동’이므로 ‘노가다’는 이것을 직업으로 삼은 사람이기에 낮잡아 표현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나>와 <다> 사전에서 ‘노가다’를 표준어가 아니라고 보고 있듯이 이 표현 자체가 일본어 ‘dokata[土方]’에서 온 것이므로 구태여 ‘노가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 용례에서 ‘몸으로 벌어먹는 노가다’라고 노가다 직업을 비하하여 표현한다.

(5) 청소부

가. 청소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남자/여자.

예) 거리 청소부 / 청소부 아주머니

나. 없음

예) 없음

다. 청소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남자/여자.

예) 청소부 아저씨. / 김 씨는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고 열심히 삶을 사는 성실한 청소부이다.

청소부 아주머니. / 그녀는 이 건물에서 청소부를 한 지 올해로 십 년이다.

7) ‘노가다’의 의미를 보면 사람, 일, 그리고 직업인 세 가지로 나누어 풀이하는데 첫 번째 나와 있는 의미를 보면 ‘행동과 성질이 거칠고 불량한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고 한다. 사람으로 뜻풀이하는 데에서도 비하하는 표현임을 알 수 있다.

‘청소부’는 ‘파출부’처럼 직업 이름에 한자말 접미사 ‘부’가 붙는데 파출부와 다른 점은 ‘부(夫)’와 ‘부(婦)’가 각각 붙어서 남성 및 여성 직업인으로 가리킬 수 있다는 것이다. <나> 사전에는 뜻풀이와 용례가 모두 없고 다른 두 사전의 뜻풀이를 보면 의미가 거의 동일하게 ‘청소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남자와 여자’를 일컬음을 알 수 있다.

용례를 보면 파출부에서의 용례처럼 두 사전 모두 ‘청소부’ 뒤에 ‘아주머니’ 혹은 ‘아저씨’를 붙임으로써 이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낮잡아 부르고 있다. 특히 ‘김 씨는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고 열심히 삶을 사는 성실한 청소부이다.’ 이 표현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청소부를 부르는 호칭이 ‘김 씨’로 표현함으로써 그렇게 대우하고 있음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박정운(2005: 78)에 의하면⁸⁾ “성-씨”의 호칭 유형은 주로 비전문적인 일에 종사하는 남자 청자에게 사용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익섭(1994: 208)에서는 <씨>가 성하고만 결합했을 때 예를 들어 <박씨>라고 호칭했을 때의 어감은 대개 그 <박씨>가 신분이 높지 않은 사람이라는 쪽이다. 이와 같이 청소부의 의미와 상관없이 언중들의 인식에는 청소부를 낮은 수준의 직업인으로 여기며 이에 대한 공경이나 높임을 나타내는 언어 사용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6) 잡상인

가. 일정한 가계 없이 옮겨 다니면서 자질구레한 물건을 파는 장사꾼.

예) 잡상인 출입 금지.

환경 정화를 내세우고 역에서 잡상인과 불량배의 일제 소탕령을 내리게 되었다.

나.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물건을 가지고 다니면서 파는 상인.

예) 가끔 관리실의 눈을 피해 잡상인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기도 한다.

다. 일정한 가계가 없이 자질구레한 물건들을 팔고 다니는 상인.

예) 잡상인 출입 금지.

경찰들은 한길에 물건을 벌여 놓은 잡상인을 오후부터 단속하기 시작하였다.

8) 박정운(2005: 78), 《한국어 호칭어 체계》, 왕한석 외(2005), 《한국사회와 호칭어》

‘잡상인’에 대한 <가> 사전의 뜻풀이를 보면, ‘일정한 가게 없이 옮겨 다니면서 자질구레한 물건을 파는 장사꾼’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장사꾼’의 의미가 우선 장사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기 때문에 잡상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평가가 담겨 있다. <나>와 <다>의 사전에서는 ‘상인’이라고 하였으나 자질구레한 물건을 판다는 것은 세 사전이 모두 동일하다. 자질구레한 물건을 파는 상인이라는 표현에서 높이 평가하지 않는 직업임을 알 수 있다.

<가>와 <다>의 두 사전에 나오는 용례를 보면 ‘잡상인 출입 금지’로 사례가 같은데 이들을 반기지 않는 표현이다. <나> 사전의 용례에서는 이들을 반기지 않기에 ‘관리실의 눈을 피해 잡상인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기도 한다.’는 문장을 예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가>와 <다>의 두 번째 용례에서도 불량배와 함께 소탕령을 내리거나 경찰들이 이들을 단속하는 문장들을 예로 들고 있어서 잡상인에 대한 직업 차별적 인식과 부정적 이미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사전에서의 지시적 의미와 함께 제시된 용례를 살펴봄으로써 해당 어휘의 뜻풀이와 용례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비교해 보았다. 뜻풀이에서 직업 차별적 의미를 알았고 제시된 용례에서 직업에 대한 언중들의 인식 및 언어 태도를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차별적 언어표현 및 그에 따른 인식이 어떠한지를 말뭉치를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말뭉치에 나오는 용례는 실제 화자들의 직접적인 언어 사용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직업에 대한 차별 용어인 만큼 이 직업 차별 용어들을 사용한 그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언어 사용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차별적 표현이 되기도 한다.

말뭉치 용례를 검토한 결과, 연구 대상의 직업에 대한 차별적 언어 사용을 크게 부적절한 호칭·지칭어를 사용한 표현, 부정적 인식을 담은 표현, 그리고 직업과 관련한 비하 표현 등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빈도로 봤을 때, 부정적 인식 표현이 43.9%, 직업 비하 표현이 26.3%, 부적절한 호칭·지칭어 표현이 21%의 순이며 나머지는 직업명의 위계, 성별 분리, 성적 대상 등이 8.9%를 차지한다.

먼저 부적절한 호칭·지칭어에 대한 용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⁹⁾

www.kci.go.kr

(7) 부적절한 호칭·지칭어 표현

7-1. 간호원

- 가. 조금 전에 퇴원했다고 간호원 언니가 말했다.
- 나. 어린 석이의 모습에 간호원 누나들도 모두 칭찬을 하였던 것이다.
- 다. 정매의 따지듯 묻는 소리에 간호원 아가씨가 무엇인가 잘못되었음을 눈치 채는 것이었다.
- 라. 김원철의 방에서 근무하는 간호원 미스 진은 미숙이와 김원철의 말에 의아해하는 눈치였다.

7-2. 운전수

- 가. 그 운전수 녀석 애길 들으니까 옛날 남편 생각이 나지 뭐니.
- 나. 이렇게 말한 후 운전수 방으로 박씨를 부르러 가는데.
- 다. 이것은 교통사고가 아니고 어떤 나쁜 운전수 놈들의 행동이라고 모두들 말씀하셨다.

7-3. 파출부

- 가. 남편과 함께 차를 마시며 파출부 이줌마가 차려준 저녁식탁에 앉아 있었다.
- 나. 창주는 아파트에 들어서자 파출부 아주머니한테 미숙이부터 자랑하였다.

7-4. 청소부

- 가. 쓰레기차에 올라타고 있는 청소부 아저씨들이다.
- 나. 제일 위험한 일을 하는 청소부 이줌마들은 그 일을 위해 독특한 복장을 하고 있었다.

7-5. 노가다

- 가. 전표조가리만 받고 노동했던 노가다 인부들이 당장 먹을 식량도 없는 형편이었다.
- 나. 데모도 나 같은 잡급 노가다 잡부한테야 그나마 주시겠습니까요?
- 다. 박계득이는 시답잖은 노가다 일꾼으로 시장 사람들에게는 좋은 인상은 아니었다.

7-6. 공돌이/공순이

- 가. 공순이 넌들 한번 맛 좀 보라지.
- 나. 공돌이 요마는...

7-7. 짬새

- 가. 한참 신나게 싸우는데 짬새 새끼들이 떼 지어 몰려오지 않겠어요?
- 나. 그런 자리에서 짬새를 보고 아저씨가 뭐니까? 아저씨가?

9) 점쟁이, 월급쟁이, 잡상인의 사례를 살펴봤을 때, 직업명 뒤에 붙는 호칭·지칭어가 없었다.

부적절한 호칭·지칭어 표현은 ‘간호원’과 ‘청소부’ 용례에서 10개 이상의 높은 빈도를 보였고¹⁰⁾ 나머지는 7개 이하로 나왔다. 먼저 ‘간호원’과 ‘청소부’를 살펴보면, ‘간호원’을 ‘간호사’나 ‘간호사님’, 또는 ‘간호사 선생님’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언니’, ‘누나’, ‘아가씨’, ‘미스 진’이라고 부르고 있다.

사전의 지시적 의미를 살펴볼 때 언급하였듯이, ‘미스 ○’은 ‘○ 양과 마찬가지로 이름이나 사회적인 신분을 나타내는 직위로 호칭하지 않는 것이며 여자를 공적인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간호원을 ‘간호사’, ‘간호사님’, 간호사 선생님’이라 부르는 것이 합당하다.

‘청소부’의 경우에 요즘 ‘환경 미화원’으로 직업명이 바뀌었으므로 간호원 처럼 ‘환경 미화원’ 또는 ‘환경 미화원님’, 또는 ‘(환경) 미화원 선생님’으로 불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용례를 봤을 때 대부분이 ‘아저씨’와 ‘아줌마’를 붙여 ‘청소부 아저씨’ 내지 ‘청소부 아줌마’로 사용하고 있었다. ‘아주머니’를 낮추어 이르는 말이 ‘아줌마’인데 그나마 ‘청소부 아주머니’라고 사용하는 예가 있기도 하다.

‘파출부’의 용례에서 이와 유사하게 호칭·지칭어로 ‘아줌마’와 ‘아주머니’를 사용하고 있다. 파출부에 ‘아저씨’의 용례는 없는데 언급한 바와 같이, 파출부의 ‘부’가 여성을 나타내기도 하며 이 직업은 주로 여성들이 도맡아 해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파출부는 최근에 ‘가사 도우미’로 바뀌 쓰고 있으므로 이를 사용해야 하며 호칭어도 ‘아줌마’ 내지 ‘아주머니’를 붙여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운전수’에 쓰는 부적절한 호칭·지칭어 표현으로 ‘녀석’, ‘○씨’, ‘놈’이 있다. 운전수를 ‘운전사’로 불러야 하며 낮추어 이르는 말인 ‘녀석’이나 ‘놈’과 같은 말을 붙여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박씨’는 운전사의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는 이름 없이 성(性)하고만 결합하여 호칭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성과 이름에 ‘-씨’를 결합한 경우는 사회에서 공적으로 부를 때에 사용되지만 성만 결합하여 ‘○씨’로는 잘 쓰지 않는다. 다만 친분

10) 부적절한 호칭·지칭어 표현은 간호원과 청소부의 용례에서 빈도가 높았는데 총 25개의 차별 표현 중 11개(23.4%)이고 청소부는 차별 표현 총 16개 가운데 10개(62.5%)가 나왔다.

이 있는 사람을 사적으로 부를 때 사용되기는 한다. 그러므로 운전사의 이름을 부르려고 할 때는 ‘-씨’를 성 이름 모두를 결합해서 부르거나 ‘기사님’으로 부르는 것이 좋겠다.

다음으로 ‘노가다’를 살펴보는데 우선 ‘노가다’보다는 ‘막일꾼’으로 순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용례에서 노가다의 의미가 ‘막일 또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일꾼)’을 일컫다 보니, 주로 ‘인부’, ‘잡부’, ‘일꾼’을 덧붙여 부르고 있다. 노가다의 말이 속되게 이르거나 썩 좋은 표현이 아니므로 ‘노가다님’은 어색할 수밖에 없으므로 ‘운전수’처럼 성 이름 모두에 ‘-씨’를 결합하여 부르는 것이 알맞으리라 본다.

‘공돌이/공순이’에서 부적절한 호칭·지칭어로는 ‘공순이’에 ‘-년’을 붙여 주로 사용한 예들이 있었다. ‘공돌이/공순이’의 용례에서 총 37개의 차별 표현 중 부적절한 호칭·지칭어가 7개(18.9%) 나왔는데 이 중에서 1개만 공돌이에 ‘요마’가 사용된 것이고 나머지 모두 ‘공순이’에 ‘년’을 붙여 쓰인 것들이다. 최근에는 ‘공고나 공대를 다니는 남자/여자’를 낫잡아 칭하기도 하지만 용례에서는 ‘공장에서 일하는 남자/여자’를 나타내고 있었다. 공장에서 일하는 직종도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가령, 조립원, 제조원, 조작용, 검사원, 정비원 등이 있을 것이다. 직종을 안다면 직종명에 ‘님’을 붙여 ‘조립원님’이라고 부르거나 성 이름 모두에 ‘-씨’를 붙여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

마지막으로 ‘째새’는 ‘경찰관’을 이르는 말이므로 ‘경찰관(님)’이 되어야 하나 용례를 보면 ‘새끼’ 또는 ‘아저씨’가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¹¹⁾ ‘새끼’는 비속어에 해당하므로 결코 사용해서는 안 되며 ‘아저씨’의 경우, 용례에서도 ‘째새를 보고 아저씨가 뭘니까?’라고 하듯이 적절한 호칭어가 아님을 표현하고 있다.

11) 이하에서는 직업 차별 용어를 순화어나 바뀐 직업명으로 쓰지 않고 직업 차별 용어를 그대로 적는다.

(8) 부정적 인식이 담긴 표현

8-1. 간호원

- 가. 간호원은 어떻게든 적당히 말대답을 할 뿐 자기 일에만 열중했다.
- 나. 간호원들의 태도는 기대 이하였다. 빨리 서류 작성하고 피 뽑자는 자세로 나에게 덤벼들었다.
- 다. 간호원인 듯 싶은 젊은 여자가 고개만 내밀었다.

8-2. 운전수

- 가. 벌어먹을 운전수 녀석, 어제 대답하는 게 꼭 막혔다 싶더니만.
- 나. 나쁜 운전수 놈들의 행동이라고 모두들 말씀하셨다.

8-3. 파출부

- 가. 돈만 되면 대학생들은 대중음식점 서빙, 심지어 파출부까지 마다하지 않는다.
- 나. 파출부한테 직업의식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서.
- 다. 파출부 임금마저 급등하면서 동남아 출신의 불법 취업자들이 우리나라의 부역을 파고들고 있는 것이다.

8-4. 점쟁이

- 가. 재수 없는 점쟁이.
- 나. 점쟁이나 예언자 가운데는 눈먼 소경들이 많다.

8-5. 월급쟁이

- 가. 평생 피죄죄한 월급쟁이 신세를 면할 수 없다.
- 나. 월급쟁이 간이 커봐야 얼마나 크겠나만.

8-6. 청소부

- 가. 기무라 씨 부부도 가난한 청소부였습니다.
- 나. 청소부로 일하면서 물건을 훔쳐 영창신세를 지는 등.

8-7. 노가다

- 가. 노가다 주제에 가다마이는, 단순한 해프닝에 그쳤지만.
- 나. 노가다 판에서 뛰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을 우연히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 다. 공장이나 노가다 일을 했다는 사실에 지독한 수치심과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8-8. 공돌이/공순이

- 가. 어머 공돌이도 나이키 신었다.
- 나. 불쌍한 공돌이끼리 잘해 봅시다.
- 다. 더 이상 공순이라고 떨시받지는 않으리라는 희망이었다.

8-9. 잡상인

가. 잡상인 근절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나. 잡상인들이 사무실 안으로 못 들어오게 신경 써서 막으세요. 알았죠?

위에서 ‘부적절한 호칭·지칭어 표현(21%)’을 다루었는데 차별 표현 중에서는 ‘부정적 인식이 담긴 표현(43.9%)’이나 다음에 다룰 ‘직업/업무 관련 비하 표현(26.3%)’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위 용례 중에서 ‘부정적 인식이 담긴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온 직업은 ‘노가다(18개)’이며 다음으로 ‘공돌이/공순이(17개)’, ‘월급쟁이(13개)’, ‘잡상인(7개)’, ‘운전수(5개)’, ‘간호원, 점쟁이(3개)’, 그리고 ‘파출부, 청소부(2개)’의 순이다.

부정적 인식이 담긴 표현은 그 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서,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아서 그리고 업신여기는 풍조가 잔존하여 등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것들이다. ‘간호원’부터 살펴보면, <가>부터 <다>까지의 사례에서 간호사들의 태도를 부정적으로 나타내는 말로, 친절하지 않고 자기 일만 하려고 하여 환자를 배려하지 않는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 ‘운전수’의 용례에서 <가>는 말에 대하여, <나>는 행동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파출부’의 용례 중에 ‘심지어 파출부까지 마다하지 않는다.’의 <가> 표현에서 파출부인 가사도우미의 직업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직업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나>에서도 파출부를 하는 사람에게 직업인으로서의 인식이나 태도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말로, 직업이나 직업인으로서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는 전체 맥락에서는 동남아 불법 취업자들이 파출부를 한다는 내용이지만 선행절을 봤을 때 ‘파출부 임금마저’에서 파출부의 임금이 오른 것에 대한 불편함을 내비치고 있다.

‘점쟁이’ <가>의 용례에서 ‘재수 없는’이라고 하여 말 그대로 점쟁이를 재수 없다고 표현하며 <나>에서는 ‘점쟁이는 눈먼 소경들이 많다’는 근거 없는 고정관념을 드러내고 있다. 운세를 볼 때는 물론이고 중요한 선택을 하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점쟁이를 찾아 의지하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이들 직업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좋지 않게 남아 있다. 그리하여 점쟁이를 대신하거나 바꿀 수 있는 직업명도 제대로 없다.

점쟁이처럼 관련된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낚잡아 이를 때 붙이는 접미사‘-쟁이’가 있는 직업으로 ‘월급쟁이’가 있다. 용례를 살펴보면, <가>에서 ‘평생 피조죄환’이라는 수식어가 월급쟁이 앞에 있는데 월급쟁이는 직종에 따라 다양하여 높은 보수의 월급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월급쟁이의 인식은 <가>처럼 평생 일을 한다고 해도 나아질 것이 없는 직업으로 표현되고 있다. <나>도 <가>와 별 차이 없이 월급쟁이의 경제력이 넉넉하지 않은 만큼 대담함이나 용기도 적음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은 ‘청소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담은 용례로 <가>에서는 ‘가난한’, <나>에서는 ‘물건을 훔쳐’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청소부처럼 ‘부’ 접미사가 붙은 직업들은 대체로 힘든 육체노동이나 꺼려하는 서비스 업무와 관련이 있으므로(이정복 2014: 314) 경제적 여건도 그리 풍족하지 않고 가난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나>의 용례처럼 청소부라는 직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훔치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노가다’의 <가> 용례를 보면, ‘노가다’를 하는 사람들은 막노동을 하므로 마치 재킷을 입으면 안 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¹²⁾ <나>는 일반 대중들의 막노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염려함을 알 수 있으며 <다>도 그런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막노동에 대한 떳떳함보다 수치심과 열등감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돌이/공순이’의 <가>도 ‘노가다’의 <가>와 마찬가지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나이키’ 신발을 신으면 안 되는 것처럼 나타내고 있다. <나>와 <다>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 및 태도로 ‘불쌍한’ 또는 ‘떨시받는’ 직업인임을 표현한 것이다. 마지막 용례는 ‘잡상인’인데 두 용례를 보면, 잡상인은 있어서는 안 되는 혹은 환영받지 못하는 직업인임을 알 수 있다. <가>에서 ‘근질’, <나>에서는 ‘못 들어오게’라는 말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나타난다.

12) 가다마이는 일본어의 ‘가타마에’(かたまえ, 싱글 재킷을 의미하는데 이 말이 변형된 것이다 (네이버 일본어 사전, <https://ja.dict.naver.com>).

(9) 직업/업무 관련 비하 표현

9-1. 간호원

- 가. 백바가지를 쓴 시다 간호원들이고.
- 나. 간호원들도 외화를 벌어들이는 인력 수출이라고 할 수 있다.

9-2. 운전수

- 가. 그 집 종업원들에게 운전수는 딴 방으로 모셔라! 하고 들어간다.
- 나. 운전 교습소에 나가 운짱(운전수) 기술을 배웠지요. 운전수 멸시 또는 친밀감을 가지고 부르는 말.
- 다. 하녀, 운전수를 부리는 사치스러운 호화생활을 즐기게 된다.

9-3. 파출부

- 가. 파출부한테 시어빠진 무청은 왜 버렸냐고 야단을 친다.
- 나. 비정규직이 전부 파출부, 햄버거에 가게에 일하는 사람인양 말했는데.
- 다. 빈민촌 아녀자가 일용직 막노동이나 파출부나 행상으로 나서지 않으면.

9-4. 점쟁이

- 가. 하잘 것 없는 직업으로 점쟁이나 다름 바가 없으니.
- 나. 인도는 노점 행상이 전 자리를 벌이고 있었다. 토정비결과 손금 그림판을 펼쳐놓은 점쟁이도 있었고 코흘리개를 옆에 앉혀 두고 누운 채 까만 손바닥을 펴고 있는 동냥꾼도 한 몫을 차지하였다.

9-5. 월급쟁이

- 가. 남의 밑에서 평생 월급쟁이 생활을 하는 편이 좋다.
- 나. 월급쟁이로 전략된다.

9-6. 청소부

- 가. 청소부 아줌마를 나무라면서 바닥도 못 닦는 둔한 사람들이라고...
- 나. 청소부는 늘 우리 주위에서 맴돌면서 시중도 들어주고 눈치나 보고...

9-7. 노가다

- 가. 노가다 죽이는 데 아이쿠치(비수)가 필요 없다. 장마가 계속되면 노가다는 비수 없이도 굶어주게 돼 있다는 뜻.
- 나. 노가다판이란 대부분이 기술 없고 밀천 없어 몸으로 때우려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라 현장 감독들인 십장이들이나 공구장이 시키는 대로 군소리 한마디 못하고 일을 했다.
- 다. 우리덜이야 잡부이니까 심하지 않지. 저쪽 함바에 있는 노가다들은 더 당히고도 산다.

9-8. 공돌이/공순이

- 가. 어떤 놈은 부모 잘 만나 대학생이구, 어떤 놈은 부모 잘못 만나 농약공장

공돌이나.

나. 이들이 깁보는 일명 ‘공돌이, 공순이’이라는 직업을 보자.

9-9. 잠상인

가. 잠상인들이 파는 물건 중에는 중국에서 수입된 불량품이 많다는 지적이다.

나. 역 주변에서 북적거리는 아귀 같은 잠상인들과 걸인들과 불량배들 사이를 신경을 잔뜩 곤두세우고 비집고 다니다가.

‘직업/업무 관련 비하 표현’은 위에서 다룬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생겨난 표현이므로 하나로 묶어 ‘직업 비하 표현’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언어 사용자의 주관적이면서 좋지 않은 인식으로 인해 또는 사회에 만연해 있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과 단순히 직업과 관련하여 그리고 그 직업의 업무와 연관 지어 비하하는 표현을 구분하였다. 직업 및 업무 관련 비하 표현에서 ‘노가다’ 용례가 13개로 가장 많았고 ‘운전수’가 8개로 다음 순위를 차지하였다. ‘파출부’, ‘월급쟁이’, ‘공돌이/공순이’, ‘잠상인’이 각각 7개씩 나왔으며 ‘점쟁이’가 5개, ‘간호원’과 ‘청소부’가 각각 4개의 순이다.

첫 번째로 나온 용례는 ‘간호원’에 관한 것으로, <가>에서 ‘백마가지를 쓴 시다’로 간호원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간호원들이 예전에 머리에 쓰던 캡(cap)을 가리켜 ‘백마가지’라고 비유를 하고 간호원을 의사의 일을 거들어 주는 사람으로 속되게 ‘시다’라고 나타낸 것이다.¹³⁾ <나>의 용례에서는 간호원이라는 직업을 ‘외화를 벌어들이는 인력 수출’이라고 비유하여 인격을 가진 직업인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외국으로 팔아 내보내는 물건에 빗대어 취급하고 있다.

‘운전수’의 용례 중 <가>는 식당에서 운전수를 같은 공간이 아닌 식당의 다른 방으로 분리시키려는 표현을 하고 있어서 운전수라는 직업을 차별 대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표현이다. <나>는 ‘운쟁’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13) ‘시다’는 ‘시다바리’라는 말로, 일하는 사람의 곁에서 그 일을 거들어 주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고 한다(우리말샘, <https://opendict.korean.go.kr>).

부연하여 ‘운전수 멸시’라는 말을 하였듯이 운전수라는 직업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담고 있다. <다>의 용례를 보면, ‘하인’과 ‘부리는’ 말에서 요즘 거의 쓰지 않는 하인과 운전수와 대등하게 낮은 직업 서열로 보며 게다가 하찮게 대하고자 하는 태도가 드러난다.

‘파출부’의 <가> 용례는 파출부 업무에 대한 표현으로, 이 표현에서 직업인으로 대우하기보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권력을 가진 상위의 사람이 낮은 지위의 사람을 나무라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나>는 파출부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에 대한 멸시를 나타내는 것이며 <다>에서 빈민촌 아녀자가 할 수 있는 일은 파출부라는 것으로 직업을 제한하고 있으며 파출부는 결국 빈민촌 즉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직업으로 표현하고 있다.

‘점쟁이’에 대한 용례 <가>와 <나> 모두 점쟁이 직업에 대해서 비하하고 있는데 <가>는 ‘하잘 것 없는’이란 말 그대로 점쟁이 직업을 전문 직업으로 보지 않고 시시하게 보고 있다. <나>에서도 점쟁이를 노점 행상에서나 볼 수 있는 사람처럼 묘사를 하고 있으며 더불어 동냥꾼과 함께 기술하여 직업인이라기보다 구걸에 가까운 사람으로 나타낸다.

‘월급쟁이’ 두 용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가>의 경우, ‘남의 밑에서’라는 말에서 월급쟁이는 직업 위계에서 낮은 단계에 있음을 나타낸다. 그리하여 월급쟁이를 한다는 것은 직업의 서열에서 <다>의 ‘전락된다’ 표현처럼 단계가 아래로 떨어져 상태가 나쁘게 됨을 표현한 것이다.

‘청소부’의 용례 <가>는 청소부 업무에 대한 것으로, 파출부의 <가> 용례처럼 말은 업무를 제대로 못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한다. <나>에서는 청소부가 청소 업무 외에도 시중을 들어야 하며 눈치도 보아야 하는 즉, 비굴한 삶을 사는 직업인으로 나타내고 있다.

‘노가다’의 <가>와 <다> 용례는 노가다 직업에 대하여 비참하게 표현한 것으로, <가>에서는 노가다라는 직업은 장마처럼 비가 계속 오면 일을 할 수 없어 굶어 죽는다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다>의 ‘더 당하고도 산다’는 말에서 유사한 직종의 잡부보다 노가다는 더 차별 대우받음을 나타낸다. <나> 용례는 노가다의 업무에 대한 것인데 전문적인 일이 아니라 ‘기술 없고 밑천 없어 몸으로 때우려’ 일로 치부해 버리고 있다.

‘공돌이/공순이’ 용례에서 <가>의 내용은 공돌이/공순이라는 직업은 신분처럼 타고나는 것으로 표현하며 <나>에서는 ‘깎보는 직업’이라는 말에서 공돌이/공순이 이 자체의 직업을 하찮게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잡상인’의 <나>에서도 잡상인의 수석어로 ‘아귀 같은’이라는 말의 비유에서 직업인으로 존중하기는커녕 잡상인을 멸시함을 알 수 있다. <가>의 용례에서는 잡상인들의 업무인 물건 파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 이 물건들이 불량품이 많음을 표현하여 잡상인을 직업인으로 신뢰하지 못함을 표현하고 있다.

(10) 기타 표현¹⁴⁾

10-1. 간호원

- 가. 간호원 여자는 이따금씩 짓궂게 가슴을 만지려 드는 내 손길을 모르는 척해 주었다. (성적 대상)
- 나. 예쁘게 생겼대요, 그래요, 간호원이래요. (외모)
- 다. 간호원이 간호사로 바뀐 것처럼 용접공도 용접원에 만족하지 않고 용접사로 고쳐달라고 할 것이다. (직업명의 위계)

10-2. 운전수

- 가. 식모나 차장이나 운전수라는 말을 대치하기 위해 가정부나 안내양이나 기사라는 말이 만들어졌지만. (직업명의 위계)
- 나. 내가 파티에 다 나간다? 솔뚜껑 운전수 몇 십 년에 연탄불 지피던 이 손을 가지고. (성별 분리)

10-3. 파출부

- 가. 여자들은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받지 못한다. 그녀들은 인형이고 전용 파출부고, 전속 창녀일뿐. (성별 분리)

10-4 공돌이/공순이

- 가. 공장 노동자, 흔히 쓰는 말로 공순이, 그 다음이 우리 언니처럼 버스 안내양, (직업명의 위계)
- 나. 사랑이란 말을 팔아서 공순이의 옷을 벗기는 자유. (성적 대상)

앞에서는 직업과 직업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담긴 표현과 직업 및 업무

14) 청소부, 노가다, 점쟁이, 월급쟁이, 잡상인, 그리고 짬새는 부적절 호칭, 지칭어, 부정적 인식, 그리고 직업 비하를 제외한 기타 사례는 없었다.

에 대한 비하 표현을 살펴보았는데 여기에서는 기타 직업 차별적 표현을 다룬다. 기타 표현이므로 빈도가 높지 않은데 위에 제시한 용례에서 볼 수 있듯이, 네 직업에서 나왔다. 기타 표현에서 ‘외모나 성적 대상으로 표현한 것(8개)’이 많은 편이고, ‘직업명에 대한 위계를 언급한 것(7개)’과 ‘직업에 따른 성별 분리를 표현한 것(3개)’의 순으로 나왔다. 외모나 성적 대상으로 표현한 용례가 나온 직업은 ‘간호원’과 ‘공순이’이며 직업명의 위계를 언급한 것은 ‘간호원’, ‘운전수’, ‘공돌이/공순이’ 용례이다. 그리고 성별 분리를 표현한 용례는 ‘운전수’, ‘파출부’, ‘공순이’에서 나왔다.

우선 외모 및 성적 대상으로 표현한 내용을 살펴보면, ‘간호원’의 <가> 용례에서 성추행을 해도 되는 직업인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나>는 ‘예쁘게 생겼대요, 간호원이래요’처럼 ‘예쁜 외모의 소유자는 당연히 여자 간호원이다’라고 등식처럼 표현하고 있다. ‘공순이/공순이’의 <나> 용례에서도 성추행의 대상으로 공순이를 나타내고 있다.

직업명에 대한 위계는 직업 이름에 서열 즉, 위아래가 있음을 나타내고자 한 것을 말한다.¹⁵⁾ ‘간호원’의 <다> 용례를 보면, ‘간호원이 간호사로’라는 말에서 ‘원’보다는 ‘사’가 붙는 직업명이 더 높음을 말한다. ‘운전수’의 <가> 용례도 마찬가지로, ‘운전수’보다 ‘기사’가 더 나음을 나타내며 ‘공순이’의 <가>에서 ‘공순이’보다 ‘공장 노동자’가 덜 비하함을 알 수 있다.

직업에 따른 성별 분리는 바꿔 말해, 성별에 따라 직업을 제한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운전수’와 ‘파출부’라는 직업의 용례에 나타난 것으로, ‘솔뚜껑 운전수’와 ‘전용 파출부’라는 비유에서 알 수 있다. 이것은 여성들은 집안일을 하는 성 역할로, 또는 주부라는 직업으로 굴레를 씌우고 있는 차별 표현이다.

15) 이정복(2014: 303~305)에 따르면 직업 이름은 사회적 선호도에 따라 언어 구성 요소에서 차이가 보인다. 그래서 사회 계급은 없어진 지 오래지만 직업 이름을 통해 여전히 한국사회에 위아래 구별이 굳게 유지되고 있다. 직업 이름을 통해 그 직업이 얼마나 강한 힘과 높은 지위를 갖는지, 얼마나 크게 존경받고 선호되는지, 어떤 다른 직업들과 같은 무리를 이루는 지를 알 수 있다고 한다.

4. 맺음말

본 연구의 목적은 말뭉치의 용례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직업 차별적 언어 사용과 그 인식을 살펴보는 것으로, 우선 직업인에 대한 사회적 대우를 알 수 있는 직업에 대한 호칭·지칭어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직업 및 직업인에 대한 언중들의 부정적인 시각이나 태도를 짐작하게 하는 부정적 인식을 담고 있는 표현과 직업 및 업무에 대한 비하 표현들을 조사·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해 보면, 부적절한 호칭·지칭어 표현에는 ‘간호원’과 ‘청소부’가, 부정적 인식을 담은 표현에는 ‘노가다’와 ‘공돌이/공순이’가, 그리고 직업 및 업무 관련 비하 표현에는 ‘노가다’와 ‘운전수’가 높은 빈도를 보였다. ‘간호원’에 언니, 아가씨, 미스 ○처럼 젊은 여성을 부르는 호칭어, ‘청소부’와 ‘파출부’는 ‘아줌마’ 내지 ‘아저씨’, ‘운전수’와 ‘공순이’는 ‘놈’과 ‘년’, ‘노가다’는 ‘일꾼’이나 ‘인부’, 그리고 ‘짹새’는 ‘새끼’가 주로 붙어서 부적절한 호칭·지칭어로 사용되고 있었다. 부정적 인식이 담긴 표현에서는 좋지 않은 행동에 대하여, 낮은 사회적 대우에 대하여, 그리고 천시하는 차별적 태도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었다. 직업 및 업무 관련 비하 표현에서는 대체로 보조적인 일을 하거나 업무를 제대로 잘 못하는 직업인으로 표현되며 대개가 낮은 신분이나 직업 서열상 하위에 있음을 드러내어 비하하는 표현들이 많았다. 마지막으로 기타 직업 차별적 표현에서는 외모나 성적 대상으로 표현한 것이 가장 많이 나왔으며 주로 젊은 여성이 하는 직업인 ‘간호원’과 ‘공순이’에서 그 용례가 나왔다.

이 연구는 한국 직업에 대한 차별적 언어 사용과 인식을 말뭉치를 통해 분석한 것으로, 한국어 및 차별 관련 연구자들에게 직업 차별 언어에 대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는 데 일차적 의의를 둔다. 이를 바탕으로 직업과 관련한 차별 언어 연구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활발한 연구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연구 결과를 통하여 무의식적으로 사용한 직업 차별 용어 사용 및 직업 차별적 표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 구미영(2007), <성별 등을 사유로 한 차별 개념의 의미와 입증>, 《노동법연구》 23, 1~38,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 국립국어원(2007), 《21세기 세종계획 성과물 관리 및 배포 지원 최종연구보고서》, 국립국어원.
- 권대건(2017), <공공언어에 나타난 차별적 언어표현 실태 연구: 성별, 신체, 인종·국정·지역, 신분을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석사논문.
- 권선진(2006), <청각장애인의 직업적 차별 실태와 정책적 함의>, 《장애와 고용》 16(1), 93~114,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 김광호(2017), <외국인 소유와 직장 내 여성 차별>, 《국제경영연구》 28(3), 135~163, 한국국제경영학회.
- 김난희(2018),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박사논문.
- 김완석·김선희(2003),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 직업의 명성 지각과 직업의 성유형 지각>, 《청소년상담연구》 11(2), 12~22,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김의순(1994), <여성의 능력과 직업 활동에 관한 부산시민의 의식구조>, 《교사교육연구》 29, 19~40, 부산대학교사범대학.
- 김정숙(2007), <여자 대학생들의 직업 포부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가정과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분업에 대한 인식과 대응 양식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17(1), 77~108, 한국교육사회학회.
- 김창환(2008), <지역 차별 인식과 출생지역별 노동시장 성과 격차>, 《한국사회학》 42(5), 31~66, 한국사회학회.
- 김태용(2014), <장애인의 근로 능력과 고용 차별 경험이 고용의 질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 김혜연·김순미·윤숙현·김성희(1999), <취업여성 노동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초 연구: 성별에 따른 취업 실태, 성차별에 대한 인식 및 직업 만족에 의한 성차별적 직업 조건 분석>,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7(12), 125~140,

- 대한가정학회.
- 김형배(2007), <한국어의 불평등한 언어문화에 관한 연구: 방송 언어를 대상으로>, 《한민족문화연구》 20, 157~186, 한민족문화학회.
- 김희순(2010), <고학력 북한이탈주민이 인지하는 차별과 직업계층 변화에 대한 인식>, 《통일과 평화》 2(2), 76~110,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나운환·정명현·박철현(2003), <각국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의 고용 차별 분석>, 《재활복지》 7(1), 1~26, 한국장애인재활협회.
- 나운환·류정진·김동주(2003),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 고용 차별 실태 연구>, 《직업재활연구》 13(1), 1~29, 한국직업재활학회.
- 마경희·김혜경(2005), <대학생의 직업의식과 젠더>, 《페미니즘연구》 5, 189~237, 한국여성연구소.
- 박동현(2011), <비정규직 차별 사례에 나타난 차별 시정제도의 쟁점 연구>, 《직업과 고용서비스연구》 6(1), 45~60, 직업과고용서비스연구학회.
- 박미희(2018), <장애인의 취업에 미치는 인적자본 및 차별 요인의 영향>, 경남대학교 박사논문.
- 박은하(2009), 《광고 속의 성차별》, 소통.
- 박정선(1985), <한국 노동시장에 있어서 여성 차별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논문.
- 박주영(2006), <성별에 근거한 차별 개념의 재고찰: 고용상 직접 차별과 간접 차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 박천수(2011), <외모차별이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에 미치는 영향>, 《직업능력개발연구》 14(3), 259~278,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배병호(2008), <비정규직 차별처우의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석사논문.
- 신광영(2011),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 차이와 차별>, 《한국사회학》 45(4), 97~127, 한국사회학회.
- 안수영(2008), <지방대 여학생의 취업 준비와 여성 직업 활동 인식>, 《학생생활연구》 33, 19~38, 충남대 혁신인력개발원.
- 안은숙(2008), <직업 욕구 분석을 통한 장애인 취업 차별 요인 고찰: 시각장애인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4(1), 83~119, 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왕한석·김희숙·박정운·김성철·채서영·김혜숙·이정복(2005), 《한국사회와 호칭어》,

역락.

우국희·주경희·이연순(2012), <취업노인의 직장 내 연령차별 경험 연구>, 《사회복지정책》 39(4), 281~304,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유경희(2003), <고용상 성차별 실태와 개선방안>, 대전대학교 석사논문.

이경미(1993), <자본주의와 장애인 차별: 한국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기제와 양상>,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이익섭(1994), 《사회언어학》, 민음사.

이정복(2014), 《한국 사회의 차별 언어》, 소통.

이정복(2010), <한국 직업 이름의 위계와 차별>, 《우리말글화》 49, 1~36, 우리말글학회.

임선섭(2011), <비정규직의 사회적 문제와 해결 방안>,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임인숙(2003), <여성의 취업과 용모차별: 기업의 용모차별적 모집 추세와 특성의 변화>, 《한국여성학》 19(1), 113~144, 한국여성학회.

전윤구(2010), <연령차별금지의 실효성과 도입방안 연구>, 《경기법학논총》 10, 145~172, 경기대학교 법학연구소.

정재권(2009),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정진영(1987), <노동시장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 문제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논총》 3, 25~50, 서울여자대학교 여성연구소.

조용만(2012), <국가인권위원회 고용 차별 시정 10년 사례의 분석>, 《노동정책연구》 12(1), 87~113, 한국노동연구원.

조태린(2006), 《차별적, 비객관적 언어 표현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국립국어원.

조홍중·전리상(2017), <차별 용어에 대한 비판적 검토: 직업, 교육, 질환, 장애 관련 차별 용어를 중심으로>, 《발달장애연구》 21(2), 23~44, 한국발달장애학회.

주정수(2015), <평등권에 비추어 본 장애인 고용 차별 금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석사논문.

최인숙(2012), <대졸자의 지역 차별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석사논문.

홍예선(2011), <장애인 고용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 의무고용제와 고용상 차별 금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 <http://dic.daum.net/index.do?dic=kor>

국립국어원 언어정보나눔터 <https://ithub.korean.go.kr>

www.kci.go.kr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

연세대 한국어 사전 <https://ilis.yonsei.ac.kr/dic>

네이버 일본어 사전 <https://ja.dict.naver.com>

우리말샘 <https://opendict.korean.go.kr>

박은하

(대구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강사)

eunha0530@hanmail.net

논문 접수일: 2019년 10월 29일

논문 심사일: 2019년 11월 15일~12월 5일

게재 확정일: 2019년 12월 6일